한국어 관계문의 통사구조 기술

신수송 · 이해윤

1. 서 론

본 논문은 비국부적 의존문들 중에서 한국어의 경우 그 특성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관계문을 어휘기능문법(혹은 LFG) 내에서 그 통사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중 통사적인 연구는 원리-매개변인 이론(기존의 GB-이론), 일반구구조문법(GPSG), 핵심어주도구구조문법(HPSG) 등을 기반으로 하여 주로 행해졌으나, 어휘기능 문법에 의한 분석은 시도되지 않았다. 이 점을 감안하여 최근 어휘기능문법에서 제시하는 '기능 불확정성'(Functional Uncertainty) 장치를 이용하여 한국어 관계문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반영해 주는 통사구조를 기술하겠다. 특히 한국어는 영어와 비교하여 볼 때 관계절 내의 부사절이나 보족어절 안에 있는 임의의 구성소가 관계화되고, 또한 관계문의 표제명사가 갖는 의미역은 언어 보편적인 의미 위계성(Thematic Roles Hierarchy)을 따르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어 관계문의 이러한 특성들을 어휘기능문법 틀내에서 형식화하고자 한다.

한국어의 관형절은 일반적으로 관계절과 보문으로 분리된다. 관계절에서는 표제명사와 관형절 내의 어떤 구성소가 공지시 관계를 가지며((1a)), 보문에서는 관형절이 표제명사의 의미를 보충해 주면서 보문명사의 내용절이 된다.((1b))[1]

(1) (a) [$_{NP}$ [$_{S}$ <u>철수가 t_i 읽은</u>] 책 $_i$]은 임꺽정이었다.
(b) 나는 [$_{NP}$ [$_{S}$ <u>철수가 학교에 간</u>] 사실]을 알았다.

이러한 관형절 중에 관계절에 대한 기존의 통사론적 접근연구에만 한정하여 살펴보면, 우선 두드러진 연구는 변형이론에 의거한 연구들이다. 70년대 변형문법의 도입으로 관계절에 대한 연구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이론 자체의 변화와 더불어 그 연구방법들도 동일명사구 삭제규칙(Equi-NP-Dele-

[1] 보문은 표제명사가 갖는 의미적 완료성에 따라 완료보문과 불구보문으로 나뉘기도 한다.

tion), 이동(Move-α), 연산자-변항간 결속(Operator-Variable Binding) 등으로 설명이 변화되어 왔다. 이와는 달리 일반구구조문법(GPSG)나 핵심어 주도구구조문법(HPSG) 등의 비변형 이론에서는 관계절을 비국부적의존구문(Unbounded Dependency Construction)[2] 의 일종으로 보고서 정보의 공유(information sharing)의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우리말의 관계문을 경희대 언어교육연구소(1990)에서는, HPSG이론에 의한 영어 관계절의 분석과 유사하게 '空 관계사'(null relativizer)를 설정하여 관계절 내의 공백과 표제명사간의 자질공유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3] 한편 본 논문의 연구기반이 어휘기능문법이고, 이 이론 또한 HPSG, GPSG와 마찬가지로 통합기반 문법(Unification-based Grammar)임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는 HPSG의 관점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여 진행될 것이다.

2. 기능불확정성과 한국어 관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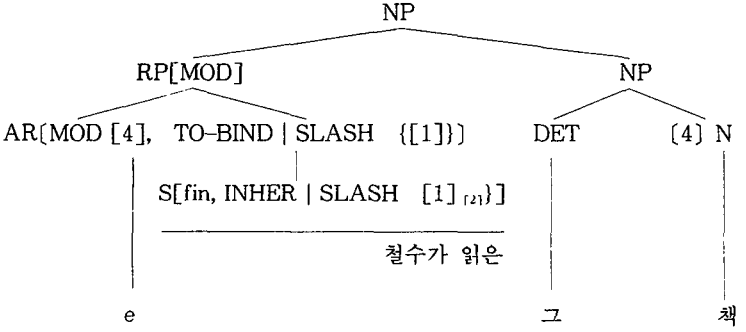
먼저, LFG에서 제시하는 한국어의 기본적인 통사론을 살펴보겠다. 한국어나 일본어 등은 영어와는 달리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을 갖는 비형상구조

[2] Pollard/Sag (1991)에서는 비국부적 의존구문을 '強 비국부적의존구문'(①)과 '弱 비국부적의존구문'(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영어의 예문들을 제시하고 있다.

① a. Kim, Sandy Loves _____.
   b. I wonder who Sandy loves _____.
   c. This is the politician who Sandy loves _____.
   d. It's Kim who Sandy loves _____.

② a. I boungth it for Sandy to eat _____
   b. Sandy is hard to love _____
   c. This is the politician Sandy loves _____.
   d. It's Kim Sandy loves _____.

[3] HPSG의 한국어 관계절 분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의 언어(nonconfigurational language)라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개개 명사구들의 문법적 기능은 후치사(Clitics)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2a), (2b)와 같이 제시할 수 있고, 동사, 형용사를 총칭하는 용언(Complex Verb: CV)은 어근(VSTEM)과 수의적 출현을 보이는 선어말어미들(TENse, HONorific, MODal), 그리고 종결어미(TERminative)로 구성된다. ((2) (c))

(2) (a) S→	CP*	CV				/* CP=Clitics Phrase */
	(↑(↓GF))=↓	↑=↓				
(b) CP→	NP	C				
	↑=↓	↑=↓				
(c) CV→	VSTEM	(TEN)	(HON)	(MOD)	TER	
	↑=↓	↑=↓	↑=↓	↑=↓	↑=↓	
(d) NP→	(DET)	(ADJ)	N			
	↑=↓	↑=↓	↑=↓			

한편, (2)의 단순한 통사규칙 이외에도, 관계문을 포함한 원거리 의존구문을 생성해 내기 위해서는 Kaplan/Zaenan (1987), Kaplan/Maxwell (1988)에서 제시하는 기능불확정성(Functional Uncertainty) 장치를 수용한 다수의 통사규칙들이 필요하다.

기능불확정성의 이용은 여타의 다른 이론들이 원거리 의존현상을 표층구조상에서 설명하려는 것과는 달리, 각 구성소가 갖는 문법기능 혹은 술어의 하위범주화 정보(술어-논항 구조)를 이용하여 문법적 관계를 보여주는 기능구조에서 그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여러 이점을 가져다 준다.[4] 다음 영어 예문을 기능불확정성으로 기술하는 모습을 보자. 예문 (3a)에 대한 통사규칙은 결과적으로 (3b)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3) (a) Mary, John said that Bill telephoned.

(b)	S' →	XP	S
		(↑TOPIC)=↓	↑=↓
		(↑TOPIC)=(↓COMP* GF)	

기능불확정성 원리를 사용한 통사규칙의 일반적인 형태는 위의 (3b)와 같다. 이 규칙에 따르면, 문장범주 밖의 임의의 범주는 TOPIC 같은 담화기능역을 배당받으며, 또한 이 범주는 기능도식의 몸체를 형성하고 있는 문법기

[4] 기능 불확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알고리즘, 그 이점 등에 대한 설명은 신수송(1991), 이해윤(1990) 참조.

능의 통로를 따라서[5] 임의의 문법기능 GF와 연결되어 빈 자질구조를 값으로 갖고 있는 심층의 문법기능이 이 담화기능과 공지시 관계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하여 예문 (3a)는 다음의 (4)와 같은 기능 구조를 갖게 된다.

(4)

```
TOPIC    [PRED 'MARY']
SUBJ     [PRED 'JOHN']

COPM     SUBJ    [PRED 'BILL']
         OBJ     [            ]
         PRED    'telephone<(SUBJ) (OBJ)>'

PRED     'say<(SUBJ) (COMP)>'
```

다음은 여타의 다른 이론들에 근거하여 연구된 관계문의 특성들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각 단계마다 도출된 결론을 어휘기능문법이 수용, 기술하는 모습을 제시하기로 하며, 앞서 설명한 기능불확정성은 관계문의 통사구조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주요장치로 이용될 것이다.

우리말의 관계문은 영어나 독일어 등과는 달리 뚜렷한 관계대명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 대신 관형형 어미들이 나타남으로써 '-고', '-는'과는 달리, 시제도 함께 표시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COMP 범주를 배당할 수 없지만,[6] 그 분포를 보면 종결어미 '다'와 관형형 어미는 동일한 계열관계에 속하는 양태를 보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TER 범주를 배당한다. 그리고 그 시제성격은 다음과 같은 어휘부를 갖는 것으로 봄으로써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다.[7]

[5] (3b)의 XP 범주에 부착된 두번째 기능도식이 기능불확정성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몸체부분은 Kleene Operator를 사용하여 COMP가 0에서 무한대로 나타날 수 있다.

[6] 이런 면을 고려하여 관형형 어미에 COMP와 INFL이 결합된 CONFL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설정하는 경향도 있다.

[7] 관형형 어미의 설정 및 분류는 (5)와는 다른 여러 방법들이 그 나름의 타당성을 갖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위와 같이 분류, 제시하기로 한다.

(5) 는, TER, (↑REL)=+
(↑TEN)=PRES
은, TER, (↑REL)=+
(↑TEN)=PAST
(↑PHON)=CON
을, TER, (↑REL)=+
(↑TEN)=FUTURE
(↑PHON)=CON
ㄴ, TER, (↑REL)=+
(↑TEN)=PAST
(↑PHON)=VOW
를, TER, (↑REL)=+
(↑TEN)=FUTURE
(↑PHON)=VOW

다음은 통사구조를 살펴보는데, 우리말의 경우 비제한적 관계절(nonrestrictive clause)의 存在 여부는 논란이 많으므로 본고에서는 제한적 관계절(restrictive clause)에 한정해서 그 구조를 논하기로 한다. 관계절은 표제명사에 先行하여 나타나는 일종의 前置 명사수식어(prenominal modifier)로 보이며, 영어나 독일어의 제한적 관계절의 경우 관계절과 표제명사가 먼저 결합한 후 관사(혹은 관사-형용사)와 결합하는 반면, 한국어의 경우 표제명사가 한정사와 먼저 결합한 후 이를 수식하는 관계절과 다시 결합하여 하나의 명사구를 이루고 있음을 다음 예문 (6)에서 알 수 있다.

(6) (a) 어제 철수가 나에게 준 {값비싼/그} 책이 없어졌다.
(b) *{값비싼/그} 어제 철수가 나에게 준 책이 없어졌다.

그러므로 관계절이 명사수식어라는 사실은, 언어 보편적으로 수식절에 부과되는 문법기능 ADJ를 배당함으로써 이를 반영하고, 관형형 어미의 존재가 그 절이 관계절임을 알려준다는 점은 제약등식(Constraining Equation)으로 표시하면, 관계절 유도의 LFG 통사규칙은 다음과 같이 우선 설정할 수 있겠다.

(7) NP → S NP
(↑ ADJ) = ↓ ↑ = ↓
(↓ REL) = c^+
……

위의 통사규칙 (7)에 나타나는 NP 범주는 표제명사이므로 이 범주에 기능불확정성 기능도식을 부착시켜서 관계문 내의 임의의 문법기능과 자질공유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명사구는 상위절에서 어떤 문법적 관계를 갖는 한편, 관계절 내에서는 주제어(TOPIC)의 성격을 갖는다. Bak (1984)에 따르면, 어떤 언어에서는 주제어 표지와 관계어 표시가 형태상으로 동일하며, 일본어의 경우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그 관계절의

심층구조상의 주제어로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말의 관계문도 다음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서술문처럼 TOPIC-COMMENT 구조를 가지며, 이때 표제명사는 관계절 내의 주제어 역할을 한다.

(8) (a)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TOPIC COMMENT
(b) 영희를 사랑하는 철수
COMMENT TOPIC

이와 같은 그의 견해를 받아들여 표제명사는 관계절 내에서 TOPIC 문법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면, 범주 S에 기능도식 (↓ TOPIC PRED) = (↑ PRED)을 부착시켜서 그 관계를 포착할 수 있겠다.[8] 그리고 이러한 TOPIC 문법기능이 관계절 내의 공백과 자질공유 관계에 있다는 점은 앞서 설명한 기능불확정성 장치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규칙 (7)을 다음과 같이 완성된 모습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9) NP → S NP
(↑ ADJ) = ↓ ↑ = ↓
(↓ REL) = c^+
(↓ TOPIC PRED) = ↑ PRED)
(↑ {ADJ, COMP}* GF) = (↑ TOPIC)

이상에서 제시한 통사규칙들을 사용하면 다음 (10a)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순관계문뿐 아니라, (10b), (10c)의 예문들처럼 깊숙히 내포된 관계문의 문법적 관계도 포착할 수 있다.

(10) (a) 철수가 사랑하는 영희가 죽었다.
(b) 존이 마신 것이 그의 부인을 언짢게 하는 이탈리아제 술은 비싸다.
철수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전경들이 제지한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이 농성을 하고 있었다.
(c)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는 철수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편지를 읽으셨을 때 학생들이 울어버린 선생님은 무척 늙으셨다.

[8] 관계대명사가 문장내에서 개별 어휘로 나타나는 영어, 독일어 등에서는 관계대명사의 통사범주에 (↑TOPIC)=↓ 기능도식을 부착시켜서 기술할 수 있겠지만, 관계대명사가 나타나지 않는 우리말의 경우 (9)에 부착된 기능도식처럼 표제명사의 자질구조를 복사하여 TOPIC 문법기능을 관계절(ADJ) 내에서 설정해야 한다.

(10b), (10c)의 예문들은 영어나 독일어 등의 언어와는 달리 한국어에만 특수하게 나타나는 관계문들이다. (10b)의 예문들은 관계절 내의 보족어절(COMP)에서 임의의 요소가 관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10c)의 예문들은 관계절 내의 부사절(ADJ)에서도 어떤 요소가 관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10b), (10c)의 예문들은 그 내포된 깊이로 인해 (10a)와 같은 단순 관계문보다는 약간 어색한 문장으로 판단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문법적인 문장들이다. 다음 (11)의 기능구조들은 이러한 (10)의 예문들에 대한 문법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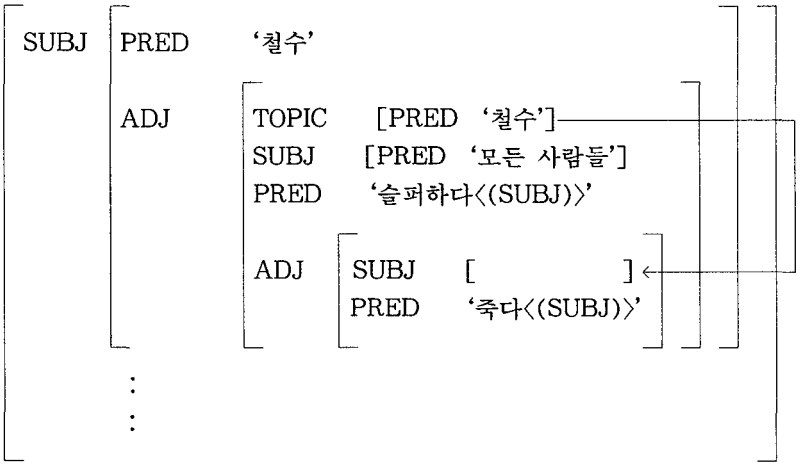
(a)

```
[SUBJ   [PRED   '영희']
        [ADJ    [TOPIC  [PRED '영희']
                [SUBJ   [PRED '철수']
                [OBJ    [              ]
                [PRED   사랑하다<(SUBJ) (OBJ)>
                [REL    +
                [TEN    PRES
 PRED   죽다<(SUBJ)>
 TEN    PAST]
```

(b)

```
[SUBJ   [PRED   '이탈리아제 술']
        [ADJ    [TOPIC  [PRED '이탈리아제 술']
                [COMP   [SUBJ   [PRED '존']
                        [OBJ    [            ]
                        [PRED   '마시다<(SUBJ) (OBJ)>'
                [OBJ    [PRED   '그의 부인']
                [PRED   '언짢게하다<(COMP) (OBJ)>'
 PRED   '비싸다<(SUBJ)>']
```

(c)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 관계문의 여러 특성들과 몇 가지 유형들을 살펴보았으며, 어휘기능문법의 기능불확정성 장치를 사용하여 그 통사구조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문법적 관계를 보여주는 기능구조를 산출해 낼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통사구조를 갖는 한국어의 관계문은 위에서 제시한 통사규칙들에 의해 무한히 생성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관계화가 제한되는 예문들을 살펴보고 이를 어휘기능문법내에 수용하는 과정을 제시하려고 한다.

3. 관계화와 의미역 위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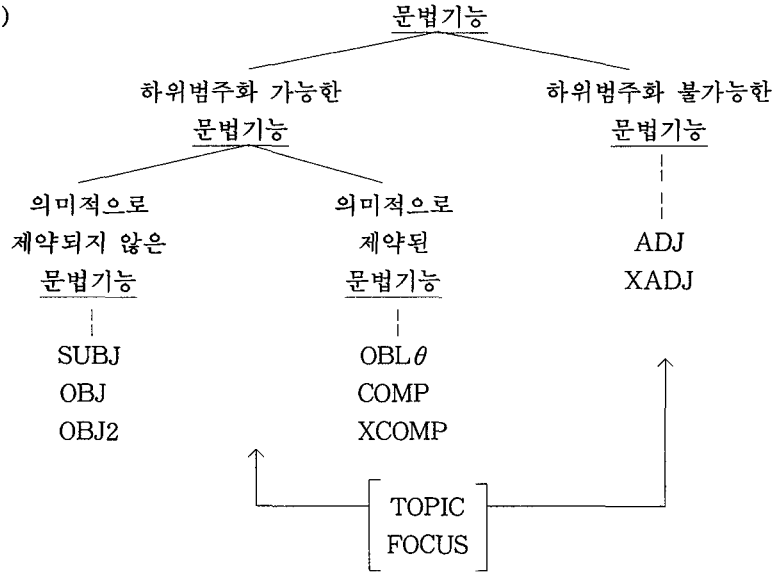
다음은 (12)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장들을 살펴보면, 관계문의 표제명사가 갖는 문법기능에 따라 그 관계화 가능성이 달라짐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과 기존의 의미역 위계성(Thematic Roles Hierarchy)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규명해 보고, 이를 통사규칙 (9)에 수용하여 다시 수정, 제시하도록 하겠다.

(12) (a) 영희를 사랑하는 철수 : SUBJ (AGENT)
경찰에 잡힌 범인 : SUBJ (THEME)
(b) 충무공이 만든 거북선 : OBJ (THEME)
(c) 방금 내가 책을 전해준 사람 : OBJ2 (GOAL)
(d)[9] 철수가 발을 물린 개 : OBLθ (AGENT)
충무공이 왜적을 무찌른 칼 : OBLθ (INSTRUMENTAL)
철수가 간 집 : OBLθ (GOAL)
철수가 앓아누운 병 : OBLθ (CAUSER)
철수가 가는 오솔길 : OBLθ (THEME)
그 사건이 일어난 대학 : OBLθ (LOCATIVE)
*내가 인 요리사 : OBLθ (CHARACTERIZING)
(← 내가 요리사 이다.)
*내가 아닌 요리사 : OBLθ (CHARACTERIZING)
(← 내가 요리사가 아니다.)
*물이 된 얼음 : OBLθ (TRANSFORMING)
(← 물이 얼음이 되다.)
*철수가 된 대통령 : OBLθ (TRANSFORMING)
(← 철수가 대통령이 되다.)
*최진사가 꽃분이를 삼은 며느리 : OBLθ (STATUS)
(← 최진사가 꽃분이를 며느리로 삼다.)
*철수가 국제회의에 참석한 한국대표 : OBLθ (STATUS)
(← 철수가 국제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하다.)
*부모가 흔히 자기아이를 생각하는 천재 : OBLθ (STATUS)
(← 부모가 흔히 자기아이를 천재로 생각하다.)
(e) *____/자기의 선생님이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 : POSS

(12)의 예문들을 보면 어떤 요소의 관계화 가능성은 그 구성소가 갖는 문법기능과 의미역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고찰을 위해서 어휘기능문법에서 가정하고 있는 문법기능들의 분류를 Bresnan (1982)에 의거하여 제시하면서, 문법기능과 의미역간의 대응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9] OBLθ 문법기능에 배당된 의미역들 중, CHARACTERIZING은 명사구로서 주어의 성격을 규명하게 되는 대상이며, TRANSFORMING은 변화에 있어서 변화의 도달점이 되는 상태나 대상을 가리킨다.

(13)



위와 같이 문법기능들을 분류하는 Bresnan (1982)에 따르면, 이러한 문법기능은 어휘기능문법 모형의 원초적인 개념으로서 더 이상 분해될 수 없으며, 술어의 어휘항목에 나타나는 술어-논항구조에서 그 술어가 의미론적으로 갖는 특정한 의미역과 대응을 이루며, 이러한 과정에서 SUBJ, OBJ, OBJ2 등의 문법기능들은 어느 특정한 의미역에만 고정되지 않고 대응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최근 논항구조에 대한 Bresnan/Kanerva (1989), Bresnan/Moshi (1990) 등의 연구에서는 원초적 개념으로 설정했던 문법기능들을 보다 원초적인 요소들을 도입하여 다시 정의함으로써,[10] 문법기능들간에 형성될 수 있는 자연부류(natural class)를 이용하여 다양한 언어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원리-매개변인 이론에서 어휘범주들이 범주변별자질 [±N, ±V]로 명시되어, 어휘범주들간의 긴밀한 관계가 나타난다든지, 혹은 음운론에서 음운을 변별자질로 표시함으로써 음운들간의 상호 긴밀성을 포착하는 방법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이와 같이 문법기능의 개념을 수정 · 보완하면서, 어떤 자연부류를 형성하는 문법기능들은 어느 특정한 의미역들과만 연관된다는 보편적인 언어현상들을 제시하고, 의미론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문법기능으로 분류했던 SUBJ, OBJ, OBJ2 등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의미역들을 상당히 제한시켰다. Bresnan/Moshi (1990)이 제시하고 있는 문법기능과 의미역들간

[10]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Bresnan/Moshi (1990) 참조.

의 언어보편적인 대응관계는 다음과 같다.

(14) SUBJ: *agent, theme, locative*
OBJ2: beneficiary, goal (recipient)
OBJ: theme

이와 같이 문법기능과 의미역들간에는 제한된 대응관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 결과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지닌 의미역을 고찰함으로써 (12)의 예문들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문법성을 의미역들간의 위계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먼저 문법기능의 측면에서 관계화 가능성을 논할 경우, 예문 (1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표제명사가 관계절 내에서 갖는 문법기능이 SUBJ, OBJ, OBJ2이면 각각의 문법기능에 대응되는 의미역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관계화할 수 있음을 볼 수 있고, 반면에 OBLθ 문법기능의 경우 그 구체적인 의미역에 따라 문법성이 달리 나타나며, 문법기능이 POSS이면 관계화가 불가능함을 보이고 있다.[11] 이러한 사실은 Keenan/Comrie (1977)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계화 위계성 원리와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를 어휘기능문법의 문법기능 용어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2]

(15) <u>SUBj〉OBJ〉OBJ2</u>〉OBLθ〉POSS〉…

다음은 (15)에 나타난 위계성을 각각의 문법기능이 배당받을 수 있는 의미역과 관련시켜서 살펴보자. 전통적으로 보면, 의미역들이 위계성(Thematic Roles Hierarchy)은 agent〉beneficiary〉goal〉instrumental〉patient/theme〉locative의 단계를 취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위계성이 낮아지며, 이러한 위계성에 의거하여 언어현상들을 설명해 왔다. 한편 (15)에서 보면, 관계화가 자유로운 문법기능은 SUBJ, OBJ, OBJ2이며, 이러한 문법기능들이 가질 수 있는 의미역은 (1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agent, beneficiary,

[11] 이중주어 문장이 성립하는 예문의 경우, POSS 문법기능이 배당된 구성소의 관계화가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본고에서 주장하는 바, 관계절 내에서 표제명사가 갖는 의미역과는 다른 이유에서 관계화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이중주어 구문의 성격과 연관하여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a. 토끼의 앞발이 짧다.
b. 토끼가 앞발이 짧다.
c. 앞발이 짧은 토끼

[12] Keenan/Comrie (1977)에 따르면, (15)는 언어보편적인 위계성으로서 그 단계가 우측으로 갈수록 관계화의 정도가 더욱 어려워지며, 관계화의 정도가 낮은 문법기능들은 그 자리에 대명사를 가지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goal, theme, locative 등의 의미역이고, 이러한 의미역은 또한 일반적인 의미역 위계성에 포괄되고 있다. 그러므로 관계화 가능성을 의미역 위계성으로 파악한다면, locative-의미역 단계까지는 관계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관계화에 대하여 상이한 문법성을 보이는 OBLθ 문법기능이 갖는 의미역을 고찰해 볼 때, 그 의미역이 위계성에 있어서 locative-의미역보다 낮은 의미역일 경우, 관계화가 불가능하다고 예측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계화 가능한 의미역과 문법기능간의 대응관계를 (1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6) 의미역 위계성 문법기능 대응관계[13]

ag	ben	go	ins	pt/th	loc	{char, trans, stat}
SUBJ	——	——	——	SUBJ	SUBJ	——
——	OBJ2	OBJ2	——	OBJ	——	——
OBLθ	——	——	OBLθ	——	OBLθ	OBLθ

다음은 문법기능들 중 OBJθ가 갖는 의미역들을 고찰해 보고, 이들 의미역들 중 관계화가 불가능한 의미역은 또한 술어와의 강한 인접성을 드러내기도 하여 그 의미역이 차지하는 위계성이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반영해주고 있음을 살펴 보겠다. 예문 (12d)에서 보면, 그 의미역이 agent, goal, instrumental 등의 의미역을 갖는 표제명사가 나타나면 그 문장들은 비교적 문법성이 높게 판단되는 반면에, 특수한 의미역들 즉 characterizing, transforming, status 등의 의미역을 갖는 표제명사로 이루어진 관계문은 그 문법성이 낮아진다.[14] 이러한 사실은 우리말이 어순교체 현상(Scrambling)을 자유로이 나타낸다는 점을 감안했을 경우, 관계화가 자유로운 의미역들은 (17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문에서도 어순교체 현상을 허용하는 반면에, 관계화가 됐을 때 그 문법성이 낮은 의미역들은 또한 단순문에서도 (17b)

[13] ag: agent, causer, effector
ben: beneficiary
go: goal, recipient, experiencer
ins: instrumental
pt: patient, theme
loc: directional locative

[14] (17)의 예문들은 (12d)의 예문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문법성 판단이다.

13에서 보는 것처럼 어순교체 현상에 있어서 제약적인 것 같다. 즉 이러한 의미역을 갖는 구성소들은 술어와의 接近性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을 지니므로 일종의 원거리 의존현상인 관계화의 불가능함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17)(a) 톱으로 철수가 나무를 켰다.
집에 철수가 갔다.
병으로 철수가 앓아 누웠다.
오솔길을 철수가 걸어 갔다.
(b) ?요리사가 내가 아니다.
?얼음이 물이 되다.
?최진사가 며느리로 꽃분이를 삼다.
?부모가 흔히 천재로 자기 아이를 생각하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말의 관계화의 경우 ag>ben>go>ins>th>loc의 순서로 그 관계화가 자유로우며, (17b)에서 보이는 그 밖의 특수한 의미역들(STATUS, TRANSFORMING, CHARACTERIZING)은 위계성이 상당히 낮아 관계화의 문법적 현상에서도 그 특성을 나타내 약한 문법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이상의 관찰을 토대로 앞서 제시한 통사규칙 (9)에 부착된 기능불확정성 도식을 $(\uparrow \{ADJ, COMP\}^* (GF\text{-}GF_i)) = (\uparrow TOPIC)$의 형태로 수정하여 다음 (18)과 같이 최종적으로 제시하면 관계절의 TOPIC과 자질공유할 수 있는 문법기능을 보다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겠다.

(18) $NP \longrightarrow S \qquad NP$
$(\uparrow ADJ) = \downarrow \qquad \uparrow = \downarrow$
$(\downarrow REL) = c^+$
$(\downarrow TOPIC\ PRED) = (\uparrow PRED)$
$(\uparrow \{ADJ, COMP\}^* (GF\text{-}GF_i)) = (\uparrow TOPIC)$
$; GF_i \in \{POSS, OBL_{STATUS}\ OBL_{TRANS.}\ OBL_{CHARACT}\}$

이상으로 본절에서는 TOPIC 문법기능이 관계문 내에서 갖는 문법기능의 종류와 그 문법기능의 의미역들간의 위계성에 의해서 관계문이 제한적으로 생성됨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을 기능불확정성의 표현내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반영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고에서는 한국어 관계문의 다양한 특성들을 어휘기능문법으로 기술해 보았다. 먼저 어휘기능문법이 제시하는 기능불확정성 장치를 이용하여 한국어의 다양한 관계문들의 통사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어의 관계문은 Keenan/Comrie (1977)가 제시하는 언어보편적인 관계화 위계성 원리에 어느 정도 부합하며, 상이한 관계화 가능성을 나타내는 OBLθ 문법기능이 갖는 의미역을 고찰함으로써 의미역들의 위계성에 따라 관계화 가능성이 결정됨을 보았고, 이를 어휘기능문법의 통사규칙 내에 반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시한 통사규칙에 따르면, 관계절 내에 무한히 내포된 부사절이나 보족어절에서도 임의의 구성소가 관계화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제한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표제명사가 관계절 내의 보족어절로부터 관계화되었는가 아니면 관계절 내의 부사절로부터 관계화되었는가에 따라, 그 표제명사가 관계절 내에서 갖는 문법기능이 상이하며, 이에 배당되는 의미역들도 어떤 위계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뒤로 미루기로 한다.

참고문헌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연구소(1990) 영 · 한 기계번역을 위한 어휘, 형태 및 통사구조의 영한 대조 분석, 한국기술원 시스템공학센터.

권재일(1984) '현대국어의 복합문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박영순(1979) '한국어와 영어에 있어서의 relative clause의 대조 연구,' 명지어문학 8.

신수송(1991) 통합문법이론의 이해－어휘기능문법－, 한신문화사, 서울.

유동석(1988) '국어의 관계화에 대하여,' 제22회 어학연구회 논문요지 및 자료.

이익섭 · 임홍빈(1983) 國語文法論, 학연사, 서울.

이해윤(1990) '독일어의 비국부적 의존현상에 관한 통사 · 의미론적 연구－어휘기능 문법을 기반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이홍배(1975) '국어의 關係節化에 대하여,' 어학연구 11.2, 289-300.

이홍식(1990) '현대국어 관형절 연구,' 國語硏究 98, 서울.

Bak Sung-Yun (1984) 'Why not a topic in a relative clause ?,' *Language Research* 20. 2, 163-180.

Bresnan, J. (1988) 'The Design of Grammar,' ms.

Bresnan, J. eds. (1982)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Grammatical Relations*,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Bresnan, J. & J. M. Kanerva (1989) 'Locative Inversion in Chichewa: A Case Study of Factorization in Grammar,' *Linguistic Inquiry* 20. 1, 1–50.

Bresnan, J. & L. Moshi (1990) 'Object Asymmetries in Comparative Bantu Syntax,' *Linguistic Inquiry* 21. 2, 147–185.

Kaplan, R. M. & A. Zaenen (1987) 'Long-distance Dependencies, Constituent Structure, and Functional Uncertainty,' ms.

Kaplan, R. M. & J. Maxwell (1988a) 'An Algorithm for Functional Uncertainty,' *Proceedings of Coling* '88.

Keenan E. L. & B. Comrie (1977) 'Noun Phrase Accessibility and Universal Grammar,' *Linguistic Inquiry* 8.1, 63–99.

Pollard, C. & I. Sag (1991) *Information-based Syntax and Semantics vol 2*, draft.

ABSTRACT

Relativization in Korean

Soo-Song Shin · Hae-Yun Lee

According to the theory of Lexical Functional Grammar (=LFG) We try in this paper to describe the relative clause in Korean which show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unbounded dependencies. Unlike in English or in German there is no lexical form of relative pronouns. The relative clauses are derived by attaching a special adnominal affix un/nun to the pseudosentences. Thus the syntactic form of the relative clauses are recognized by the feature [+REL] assigned to the adnominal affix un/nun. On the other hand the functional schemata (↓ TOPIC PRED)=(↑ PRED) reflects that the head noun of the relative clauses plays not only a role of special grammatical function in the matrix clause but also has a topic function within a relative clause. The relationship between TOPIC and its gap in a relative clause can be described in a functional structure by the notion of functional uncertainty such as (↑ {ADJ, COMP}* GF)=(↑ TOPIC). This kind of functional uncertainty enables us to describe the peculiar phe-

nomena of the gaps in COMP-clauses and also in ADJ-clauses in Korean. Finally it comes out clear in this work that the possibility of relativization of a constituent is solely dependent on its thematic role assigned by the predicate of a relative clause. We also find out in this paper that the upper part thematic roles of the hierarchy of the Bresnan (1988) can easily participate in the relativization in comparison with those of the lower thematic roles of the hierarchy. These phenomena can also be appropriately explained on the syntactic level in accordance with the notion of functional uncertainty of LFG.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